

		<h2>보도자료</h2>	
보도일시	2021. 10. 26.(화) 13:30	배포일시	2021. 10. 26.(화) 11:30
담당과장	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장 나상곤 (044-215-4510)	담당자	이현대 사무관 (leht@korea.kr)

「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」 개최

- **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'21.10.26.(화) 10:00** 정부서울청사에서 「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」를 주재하였음
 - 금번 회의에서는
 - ① 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·보고,
 - ②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,
 - ③ 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,
 - ④ 소비쿠폰 재개방안
 안건이 논의되었음

※ (붙임) 1. 부총리 모두 발언
2.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
※ (별첨) 1.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
2. 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
3. 소비쿠폰 재개방안

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

- 지금부터 **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(경제중대본)회의**를 시작
 < 최근 경제동향 및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>
- 오늘 아침 **3/4분기 GDP 속보치(한은)**가 발표됨
 - 3/4분기 코로나변이 확산, 글로벌 공급망 차질 지속 등과 함께 지난 4분기 연속 이어왔던 빠른 회복세가 일부 조정을 받으면서 **전기대비로는 0.3%, 전년동기대비로는 4.0% 성장**을 기록
 - 견조한 수출흐름이 3/4분기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한 가운데 코로나 4차 확산 원자재가 상승 등이 **민간소비·건설투자 등 내수회복을 제약**($\Delta 0.5\%p$ 성장기여)
- 이제 연말까지 남은 기간이 정말 중요. 4/4분기 실적에 따라 **금년 성장을 뿐 아니라 동시에 내년 경제성장의 출발선(Base)이 결정**되기 때문
 - 다행히 10월 들어서도 수출이 **30% 이상의 높은 성장세***를 이어가고 있고, 내수도 **카드매출 증가율이 점점 커지는**** 가운데 **소비지출 지원 백신접종 70% 달성(10.23) 등이 뚜렷한 새 모멘텀을 제공**하게 될 것
 - * 수출 증가율(전년비, %): ('21.1/4)12.5 (2/4)42.1 (7)29.7 (8)34.7 (9)16.7 (10.1~20)36.1
 - ** 카드매출(전년비, %) : ('21.3)19.5 (4)14.3 (5)5.5 (6)7.6 (7)7.9 (8)7.2 (9)8.8 (10.1~20)12.0
- ☞ 11월부터 **일상회복을 향한 방역전환 속도**가 빨라질 것인 만큼 남은 기간에 **방역과 경제가 잘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①민생회복 ②경기 반등에 총력**을 기울여 나갈 것
 - 무엇보다 오는 10.27일부터 **집합금지·제한업종에 대한 2조원이 넘는 손실보상 지급**(약 2.4조원, 약 80만명)을 **차질없이 실행**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도 **저리자금 공급 등 맞춤형 지원**을 강화해 나갈 것
 - 또한 방역지침 범주내에서 11월초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**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**하고 **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중(11.1~15일) 각종 소비할인 행사 개최 등 민간소비력 제고를 통한 경기뒷받침**에도 중점을 둘 것임
 - * 9개 쿠폰 모두 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방역친화적 관점에서 기존 비대면 방식 활용도 병행(예: 외식쿠폰,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주문시 1만원 환급 등)

< 금일 회의 주요 논의 >

□ 오늘 회의에서는

- ① 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(유류세 인하 포함)
- ② 소비쿠폰 재개방안(서면)
- ③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등 3건을 상정·논의함

□ 첫 번째 안건은 「**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**」임

- 최근 국제유가가 3년만에 가장 높은 80불대,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수준을 보이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며 전 세계가 공통으로 글로벌 인플레이 압력에 직면

☞ 우리도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흐름세 속에 연간 물가상승율이 2%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어 물가안정문제가 최우선 민생정책이 아닐 수 없음 → 이에 정부는 모든 가용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집중 대응중

- 특히 금일 논의하는 추가대책에는 국민과 기업, 근로자들의 동절기 유류비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4월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는 20% 인하, 같은 기간 LNG 할당관세는 0%를 적용*하는 방안이 포함

* 유류세 인하효과(약 2.5조원): (휘발유) 164원/ℓ, (경유) 116원/ℓ, (LPG) 40원/ℓ
→ 석유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월별 약 0.33%p 물가인하효과 발생 전망

→ LNG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11~12월 가스요금 동결, 발전·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

☞ 정부는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특히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집중 현장점검할 것

□ 두 번째 안건은 「**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**」임

-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금융불균형 심화, 취약계층 부실 등 우리 경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가 긴요

* 가계신용 증가율(전년동기비, %): ('18)5.9 ('19)4.1 ('20)8.0 ('21.1/4)9.5 (2/4)10.3

☞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①총량관리 지속, ②상환능력내 대출 즉 DSR* 규제 강화, ③실수요자 보호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

* Debt Service Ratio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: 차입자의 소득 대비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비율

- 먼저, '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금년보다 낮은 4~5%대 수준으로 관리 되도록 하고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단위 DSR 2단계 규제*를 6개월 앞당겨 '22.1월부터 시행(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)

* (현행)6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 및 1억원 초과 신용대출→(2단계)총 대출액 2억원 초과 대출

- 다만 실수요자 보호노력은 지속할 계획. 즉 전세대출의 경우 금년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, 내년 DSR규제 강화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

· 또한 4분기 입주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

☞ 상세한 대책내용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께서 별도 브리핑할 예정임

붙임 2

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
◇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담당부서		담당과장	담당자
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	금융위	금융정책과	이동훈 과장 (02-2100-2830)	김경문 사무관 (02-2100-2824)
	기재부	자금시장과	심규진 과장 (044-215-2750)	심승미 사무관 (044-215-2755)
최근 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	기재부	물가정책과	김승태 과장 (044-215-2770)	이상홍 사무관 (044-215-2771)
		환경에너지세제과	조용래 과장 (044-215-4330)	권순배 사무관 (044-215-4331)
		산업관세과	정형 과장 (044-215-4430)	김종락 사무관 (044-215-4431)
	농식품부	원예산업과	김형식 과장 (044-201-2231)	손경문 서기관 (044-201-2234)
	산업부	산업정책과	윤성혁 과장 (044-203-4210)	김승태 사무관 (044-203-4213)
		석유산업과	박덕열 과장 (044-203-5220)	임미정 사무관 (044-203-5222)
		가스산업과	김진 과장 (044-203-5230)	김세민 사무관 (044-203-5216)
	해수부	유통정책과	임태훈 과장 (044-200-5440)	김지현 사무관 (044-200-5447)
	공정위	카르텔조사과	전상훈 과장 (044-200-4551)	박진석 사무관 (044-200-4554)
	관세청	통관물류정책과	한민 과장 (042-481-7810)	박시원 사무관 (042-481-7851)
	조달청	원자재비축과	노배성 과장 (042-724-7183)	전연수 사무관 (042-724-7184)
소비쿠폰 재개방안	기재부	경제분석과	김영훈 과장 (044-215-2730)	이종민 사무관 (044-215-2732)
	문체부	기획혁신담당관	최성희 과장 (044-203-2211)	김미숙 사무관 (044-203-2218)
	농식품부	외식산업진흥과	문지인 과장 (044-201-2151)	박태준 사무관 (044-201-2157)